

2017년 12월 17일, 한림읍 귀덕1리 김천혜 씨 댁, 송정희 조사.
김천혜(여, 1938년생, 한림읍 귀덕1리)

- 줄거리: 자신의 딸은 팥죽을 먹이고 의붓딸은 콩죽을 먹였다. 자신의 딸은 팥죽을 먹여 얼굴에 뾰족뾰족한 것이 나서 못생겨졌고, 콩죽을 먹은 의붓딸은 얼굴이 살이 썼다.

[제보자] 다슴아기. 이녁 뜰은 뜯죽을 썬 멱이고 다심뜰은 콩죽을 썬 멱엿인디. 이녁 뜰 뜯죽 썬 멱인 애긴. 그 풋, 풋이 뻘건 거 뾰쪽뾰쪽 나멍 막 지치고 풋이, 풋이 영양 엇인고라. 지치고. 콩죽 썬 큰 아긴 민딱허게 곱고, 더 건강해낫젠 그런 소문 그런 말은 헤낫지게.

이녁 아긴 뜯죽만 썬 멱이단 보난 지천 풋이 드랑드랑 얼굴에 삐죽삐죽삐죽허고, 콩죽 썬 멱인 아긴 민짝허게 고완. 구름이 나게 슬지고 경 헷젠. 그런 말 셔낫어. 옛날 콩죽, 뜯죽 헤영. 건디 우리 동네엔 경 헌 사름도 엇고.

- 핵심어: 콩죽, 뜯죽(팥죽), 다심뜰(의붓딸), 얼굴